DAY 60 · 6부 앞으로

그래서 나는 뭘 준비하면 될까 — 배우는 순서

하루 5분 AI 수업 · 2026년 11월 5일

60일 동안 배운 건 AI가 아니라, AI를 앞에 두고 생각하는 순서였어.

한 줄로 말하면

1. 새 도구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니야. 60일 내내 반복해서 나온 답은 하나였어 — **묻고, 확인하고, 직접 해 보고, 내 말로 설명하는 순서**를 몸에 익히는 것.

2. 이 순서가 답인 이유는, AI가 가져가는 조각과 사람한테 남는 조각이 딱 여기서 갈리기 때문이야. **초안은 AI가 주고, 맞는지 정하는 건 너**거든.

3. 그리고 이 순서는 도구가 또 바뀌어도 그대로야. **도구는 몇 달마다 바뀌지만 배우는 방법은 안 바뀌어서**, 오늘 익힌 게 내년에도 쓸모 있어.

AI에 끌려가는 쪽 vs AI를 쓰는 쪽

끌려가는 쪽

· 받은 답을 그대로 낸다
· 맞는지 확인하지 않는다
· 왜 그런지 설명 못 한다

→

쓰는 쪽

· 받은 답에 근거를 묻는다
· 직접 해 보고 틀린 데를 찾는다
· 내 말로 다시 설명한다

오른쪽이 더 잘난 사람이라서가 아니야. 순서를 한 바퀴 더 돌았을 뿐이야.

핵심: 준비물은 새 지식이 아니라 묻고·확인하고·해 보고·설명하는 순서다

배우는 순서 맞추기 — 60일치 정리

새 도구를 처음 만났을 때

1. 뭘 하는 건지 묻기
2. 작은 걸로 시험해 보기
3. 틀린 데 찾아보기
4. 내 말로 정리하기

묻기로 시작해 내 말로 정리하며 끝나. 3부에서 배운 '작게 시험해 보기'가 그대로 여기…

AI 답을 받았을 때

1. 무슨 근거인지 묻기
2. 출처를 직접 열어 보기
3. 아는 것과 맞춰 보기
4. 쓸지 말지 내가 정하기

마지막이 '내가 정하기'인 게 중요해. 어제까지 본 대로 정하고 책임지는 조각은 끝까지…

혼자 새로 배우고 싶을 때

1. 궁금한 걸 문장으로 적기
2. AI한테 설명 받기
3. 직접 해 보며 막혀 보기
4. 막힌 데를 다시 묻기
5. 남한테 설명해 보기

한 바퀴 돌고 나면 다시 첫 칸으로 돌아가. 이 고리를 혼자 돌릴 수 있으면 선생님 없이…

섞인 조각을 순서대로 눌러 봐. 세 상황 다 순서가 같다는 게 오늘의 포인트야.

웹 수업에서 직접 해 볼 수 있어요 · next-token.net/learn/day-60/

확인해보기

세 문제만 풀어 보자

Q1 60일 수업이 내린 '준비물'은?

① 최신 도구 이름 외우기
② 묻고·확인하고·해 보고·설명하는 순서
③ 영어 실력
④ 빠른 컴퓨터

Q2 AI 답을 받았을 때 마지막 칸은?

① 근거 묻기
② 출처 열어 보기
③ 쓸지 말지 내가 정하기
④ 다시 물어보기

Q3 혼자 배울 때 '막히는 것'은 뭘까?

① 실패했다는 신호
② AI 잘못
③ 그만둘 때
④ 순서의 한 칸

왜 그런지까지 알고 가자

Q1

② 도구는 계속 바뀌지만 이 순서는 안 바뀌어. 그래서 오늘 익힌 게 내년에도 쓸모 있어.

Q2

③ 확인까지는 도구가 도와줄 수 있어도, 쓸지 말지 정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는 건 끝까지 사람 몫이야.

Q3

④ 직접 해 보다 막혀야 다시 물어볼 게 생겨. 막힘은 고리를 한 바퀴 더 돌리는 연료야.

60일 동안 배운 건 AI가 아니라.
AI를 앞에 두고 생각하는 순서였어.

내일은 60일 수업 끝 — 여기까지 60일 동안 AI가 어떻게 생겼고 뭘 하고 뭘 조심할지 봤어. 이제 묻고·확인하고·해 보고·설명하며 네가 네 선생님이 되면 돼.